

미국 가계 순자산,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 ... 경제 불평등은 심화



▲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했다.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커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전날 소비자재정조사(SCF)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가계의 중간 순자산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37% 증가했다. 이 조사 결과는 1989년 시작 이후 3년마다 발표되는데, 이번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연준은 순자산 증가는 인종이나 연령, 자산 보유 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며, 부분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 주식과 주택의 소유 가능성이 커졌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가계는 주택과 주식 시장 호황, 정부 부양책, 견고한 일자리 시장, 재택 시간 증가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 이는 금리가 지난 22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으나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잘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셈이다. 견고한 소비자 지출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소득 증가는 상위 소득층에서 가장 컸으며 이는 불평등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고물가에 "Z세대도 소비 습관 바꿨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에 미국의 젊은 세대도 지출을 줄이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8월 15~28일 Z세대로 분류되는 미국의 18~26세 1천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치솟은 생활비' (higher cost of living)를 꼽았다. 또 Z세대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3%가 "지난 한 해 동안 물가 상승 탓에 소비 습관을 바꿨다"고 답했다.

외식하는 대신 집에서 더 자주 요리하고(43%), 옷에 쓰



▲ LA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 사진=shutterstock

는 지출을 줄였으며(40%), 식품 구매를 필수적인 품목으로 제한한다(33%)는 것이 구체적인 변화상으로 꼽혔다.

이렇게 소비 습관을 바꿨다는 이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고물가의 압박이 줄더라도 향후 1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근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10명 중 4명꼴(37%)로 저축액 감소나 부채 증가 등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27%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다.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가격 천정부지 ... '펀플레이션' 시대

미국에서 공연 관람과 놀이공원 입장 등 오락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락비용이 급등하면서 일반적인 미국 가정이 오락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런 현상을 재미를 뜻하는 '펀(Fun)' 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을 조합해 '펀플레이션(Funflation)' 이라고 규정했다.

펀플레이션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대중음악 공연이다. 올해 북미지역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평균 가격은 120.11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7.4%,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27%나 오른 가격이다.



▲ 지난 7월 시애틀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장 모습. 사진=bizjournals.com

현재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입장권 평균 가격은 254달러, 재판매 평균 가격은 1천95달러에 달한다.

놀이공원 입장료도 오르고 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에는 1일 이용권 가격을 194달러로 15달러 올리는 등 각종 입장권의 가격을 1년 만에 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오락을 포기하는 미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WSJ이 소비자 1천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7%는 가격 인상 탓에 각종 입장권 구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참가자 중 20%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등 참석하고 싶은 오락 이벤트가 있을 경우 빚을 내서라도 입장권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